

# 司馬光의 洛陽 隱逸時期 詩 연구

吳憲必\*

## <목 차>

1. 緒論
2. 洛陽 隱逸時期 시의 내용
  - 2.1 政治的 失意
  - 2.2 獨樂的 삶 추구
  - 2.3 名士와의 交誼
3. 結論

## 1. 緒論

司馬光은 北宋時代의 政治家이며, 思想家인 동시에 史學家이며 文人이었다. 그에 대한 연구는 주로 不朽의 역사서인 《資治通鑑》에 비중을 두고 그의 史學者로서의 위상을 평가하는 데 치중되어 왔다. 정치가·사상가로서의 연구가 그 뒤를 이었지만, 문인으로서의 연구는 매우 미미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런 원인은 司馬光에 대한 史學家·政治家·思想家로서의 이미지와 업적이 크게 부각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北宋 文壇에서 歐陽修·蘇東坡·王安石·黃庭堅 등의 문인들에 비해 문학비평가들에게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의 80권의 《司馬文正公傳家集》<sup>1)</sup> 중에는 制詔 46편, 表 36편, 奏章 390편, 書啓 78편, 論·義·評 63편, 序 25편, 記 10편, 傳 5편, 題跋

\* 덕성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1) 司馬光, 《司馬文正公傳家集》, 臺灣: 商務印書館, 1968.

4편, 疑孟 11편, 迂書 41편, 碑·誌·行狀·墓表·哀辭·祭文 68편과 古賦 3수, 古詩 275수, 律詩 750여 수 등 詩가 1,030여 수 수록되어 있으며, 적지 않은 文學論을 주장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北宋 文壇에서 문장가·시인으로서의 그의 위상은 간과할 수 없다고 하겠다.<sup>2)</sup>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司馬光의 문학적 위상을 평가하는 선행단계로 먼저 <司馬光의 詩觀과 社會詩><sup>3)</sup>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후속 연구로 本稿에서는 司馬光이 保守派의 領袖로서 王安石의 新法政策에 반대하다가 洛陽에 15년간 은거한 熙寧 四年(1071)부터 元豐 八年(1085)까지의 시 작품을 고찰함으로써 그의 시인으로서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司馬光은 이 시기에 新舊 黨爭의 政爭에서 밀려 좌천이나 다름없이 洛陽으로 물러나 '獨樂園'에 은거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는 삶을 추구하는 한편, 400여 수의 시를 지을 정도로 가장 왕성하게 창작 활동을 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 2. 洛陽 隱逸時期 詩의 내용

### 2.1 政治的 失意

司馬光은 進士에 급제, 官界에 입문하여 30여 년 동안 승승장구하다가, 王安石의 개혁 정책에 반대 입장을 취한 원인으로, 53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洛陽에 은거하게 되었다. 그는 이곳에 獨樂園을 조성하고, 養生을 하며 名士들과 交遊하기도 하고, 《資治通鑑》 등의 저술 활동<sup>4)</sup>을 하였지만, 정치적 관심은

2) 拙稿, <司馬光의 詩觀과 社會詩>, 《中國學論叢》 39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3. 2. 96쪽.

3) 同上.

4) 이 시기의 대표적인 저술로는 《資治通鑑》, 《通鑑目錄》, 《通鑑考異》, 《稽古錄》, 《百官公卿年表》, 《迂書》, 《疑孟》, 《法言集註》, 《集註太玄經》, 《致知在格物論》, 《葬論》, 《中和論》, 《潛虛》, 《書儀》, 《徽言》 등을 들 수 있음.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개혁파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정치적 失意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먼저 洛陽에 첫발을 들여놓았을 당시 그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初到洛中書懷>5)

三十餘年西復東,	30여 년간 동분서주
勞生薄宦等飛蓬。	고달팠던 낮은 벼슬살이 바람에 날리는 마른 쭉과 같았건만
所存舊業惟清白,	옛 업적이라면 오직 청백하고
不負明君有朴忠。	밝은 군주 저버리지 않고 순박하고 충성스러웠던 것.
早避喧煩眞得策,	일찌기 요란스런 政爭을 피해 실로 계책을 마련하여
未逢危辱好收功。	치욕을 받지 않고 수습이 잘 되었네.
太平觸處農桑滿,	태평스럽게 가는 곳마다 농사 짓고 뽕나무 가득하니
贏取閭閻鶴髮翁。	시골의 백발 노인이 되었으면 하네.

30여 년간의 벼슬살이에서 미미한 업적만을 남겼다고 自謙하면서도, 군주에 대한 충성스러움은 변함이 없었다고 自負하고 있다. 이어서 新法黨과의 격렬한 政爭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다행으로 여기며, 향후 洛陽 시골에서 벼슬살이의 굴레에서 벗어나 남은 여생을 평민처럼 보내고 싶다는 憧憬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脫俗의 삶을 추구하고 있으면서도 그의 내면세계에서는 여전히 政爭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閑居>6)

故人通貴絕相過,	옛 친구들 귀인에게 빌붙어 서로 왕래를 끊으니
門外眞堪置雀羅。	문 밖에 정말 참새 그물을 놓아도 되겠네.
我已幽慵儘更懶,	내가 은거하여 신경을 쓰지 않자 하인들도 더 게을러
雨來春草一番多。	비온 뒤 봄 잡초가 무성해지고 많았네.

5)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司馬光 撰, 李之亮 箋註, 巴蜀書社, 2008. (이하 書名만 밝힘), 297쪽.

6)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488쪽. \* 《司馬溫公集 編年箋註》에서는 이 시를 慶歷6년, 國子監 直講 시기에 지은 작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그 내용으로 봐서 洛陽 은거 시기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첫째 구에서는 자기와는 교제를 끊고 王安石의 新法黨에 附和雷同하는 政界의 옛 친구들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政界에서 退出된 데 대한 불만의 표현이며, 은거생활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의 표출인 것이다. 셋째·넷째 구에서는 ‘하인들을 방임하자 잡초가 무성해지고 말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속세에서 逸脫하지 못해, 유유자적한 은거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에서도 그가 세속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獨步至洛濱 二首 其二><sup>7)</sup>

草軟波清沙徑微,	풀은 보드랍고 물결은 푸른데 모랫길은 아득하고
手持筇竹着深衣。	두루마기 걸치고 손에 죽장 짚고 나섰네.
白鷗不信忘機久,	갈매기는 내가 세속을 잊은 지 오래됐음을 믿지 않고
見我猶穿岸柳飛。	나를 보고는 버들 언덕을 가로질러 날아가네.

첫째·둘째 구에서는 세속적인 일을 잊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나 셋째·넷째 구에서는 나와 벗하지 않고 날아가버리는 갈매기의 형상을 통하여 아직도 정치적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의 <居洛初夏作><sup>8)</sup>에서도 洛陽의 초여름의 景色을 묘사하는 중에 政界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四月清和雨乍晴,	사월 맑고 온화한데 비 오다 잠깐 개니
南山當戶轉分明。	남산이 대문 앞에 다가선 듯 또렷하네.
更無柳絮隨風起,	더우기 바람 따라 날리는 버들개지는 없고
惟有葵花向日傾。	오직 해를 향해 기울이는 해바라기만 있네.

7)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36쪽.

8)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77쪽. \* 이 시는 《司馬溫公集》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陳衍 評點의 《宋詩精華錄》에 <客中初夏>라는 제목 아래 元祐 入相時의 작품이라고 하였으나, 蔡正孫의 《詩林廣記》에 <居洛初夏作>라는 제목을 달고, 《東臯雜記》의 자료를 첨부하여 낙양에서의 작품이라고 입증하고 있으므로, 이 설에 따라 洛陽 은거시기의 작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앞 두 구에서는 비 오다 갠 초여름의 경치가 신선하고 생동감있게 묘사되고 있다. 뒤 두 구에서도 초여름의 풍광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버들개지와 해바라기의 대비를 통하여 자신은 바람에 따라 날리는 버들개지처럼 附和雷同하는 소인배가 아니며, 해바라기가 해를 향하는 것처럼 황제를 향한 忠貞이 일편단심임을 밝히고 있다. 버들개지에 新法黨의 무리를, 해바라기에 자신을 기탁한 托物言志의 典型手法이 돋보인다.

<花庵獨坐><sup>9)</sup>에서도 겉으로는 은거를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新法이 추진되고 있는 정치적 상황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드러난다.

荒園才一畝,	거친 뜰이 겨우 한 뼛이지만
意足已爲多。	마음이 흡족하니 이미 많이 보이네.
雖不居丘壑,	언덕과 골짜기에 살지는 않지만
常如隱薜蘿。	늘 은자의 집에 은거하는 듯하네.
忘機林鳥下,	속세의 일을 잊으니 숲 속 새가 내려 오고
極日塞鴻過。	멀리 바라보니 변방 기러기 날아가네.
爲問市朝客,	市井과 조정의 객에게 묻노니
紅塵深幾何。	붉은 티끌이 얼마나 쌓였소?

‘속세의 일을 잊으니(忘機) 새들도 벗삼으려 한다’면서 隱逸之樂에 만족하며, 붉은 티끌이 쌓인 속세의 굴레에 갇힌 王安石을 비롯한 新法黨派(市朝客)를 조롱하고 있다. 그러나 新法黨派를 조정의 주인이 아닌 손님이라고 언급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司馬光 자신이 조정의 주인이 되지 못한 데 대한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고 하겠다.

司馬光은 또한 유유자적한 삶을 통하여 政治的 失意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送祖擇之><sup>10)</sup>

人生榮與辱,	인생에서 영예와 치욕은
百變似浮雲。	자주 변하여 뜬구름 같도다.

9)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09쪽.

10)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24쪽.

自有窮通定,	본래 막힘과 통함은 정해져 있으니
徒勞得喪分。	얻고 잃음을 구분하는 것은 헛수고일 뿐.
消愁唯有酒,	시름을 삭일 수 있는 건 오직 술뿐이고
娛意莫如文。	마음을 달래는 건 글 만한 것이 없네.
方寸常蕭散,	마음이 늘 자유로울 수 있다면
其餘何足云。	그 나머지는 무엇이 말할 만한 것인가?

‘인생의 영욕은 뜬구름같이 자주 변한다’고 自慰하면서도 시름을 술로 달래는 그의 모습 속에서 政治的 失意로 초래된 마음의 상처가 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또한 7,8구에서 정치적 미련에서 벗어나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그의 기원이 절실함을 알 수 있겠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염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다음의 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宿南園><sup>11)</sup>

頃來興味少,	요즈음 흥미가 없어서
旬日不爲詩。	열흘 동안 시도 짓지 않았네.
昏昏但思眠,	정신이 혼미하여 단지 자고만 싶고
疲病知吾衰。	지치고 병나니 내가 쇠약해졌음을 알겠네.
豈無籬邊菊,	어찌 울밑에 국화가 없겠나만
不欲拈酒卮。	술잔을 들고 싶지가 않네.
絡緯爾何苦,	베짱이야 너는 무엇이 괴로워서
終夕鳴聲悲。	밤새도록 비통하게 우느냐?

이 시를 통하여 司馬光은 洛陽 은거 후 南園 즉 獨樂園의 전원생활에 익숙하지 못하고, 정신적 피로가 쌓여 병이 날 정도로 상당히 심신이 쇠약한 상태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이 좋지 않아, 술로 우울한 심정을 풀 수도 없는 신세를 밤새 비통하게 우는 베짱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司馬光은 개혁과 세력에 밀려, 洛陽에 은거하며 유유 자적인 삶을 추구하고자 하였으나, 정치적 실의를 떨쳐버릴 수 없는 심정을

11)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275~276쪽.

시 속에 투영하였던 것이다.

## 2.2 獨樂의 삶 추구

司馬光은 洛陽에서 처음에는 御史臺 官舍 곁에 1畝 정도의 '花庵'이란 조그마한 거처를 마련하여 지내다가, 3년 후인 熙寧 6년(1073)에야 國子監 곁에 20畝 가량의 황무지를 매입하여 '獨樂園'을 조성하였다. 司馬光은 獨樂園에 은거하면서 獨樂의 삶을 추구하였는데, 獨樂의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하는가?

그의 <獨樂園記>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맹자가 말하기를 '홀로 즐기는 즐거움은 남과 더불어 즐기는 즐거움보다 못하고, 적은 사람들과 즐기는 즐거움은 많은 사람들과 즐기는 즐거움보다 못하다.'라고 했다. 이것은 王公·大人들의 즐거움이지, 빈천한 자들로서는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자는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베개하고 잠을 자더라도, 즐거움이 이미 그 안에 있다.'라고 하였다. 안회는 한 그릇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도 (즐거움을 찾아)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았다. 이것은 성현의 즐거움이지, 어리석은 자들은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릇 굴뚝새가 숲에 등지를 트는 데는 나무 한 가지에 불과하고, 두더지가 강물을 마시는 데도 배를 채우는 데 불과하다. 각각 그 분수에 맞게 안주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迂叟의 즐거움인 것이다. —— 하늘과 땅 사이 또한 어떤 즐거움이 이를 대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까닭으로 (책을 읽는 즐거움과 동산에서 노니는 즐거움) 합하여 獨樂園이라 이름짓는다.<sup>12)</sup>

司馬光은 일찍이 '迂叟' 즉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이라고 自號하였는데, 이 글에서도 자신은 빈천하고 어리석은 자이므로, 王公·大人들의 衆衆樂(많은 사람들과 즐기는 즐거움)과 聖賢의 安貧樂道의 즐거움을 누릴 수 없다고 自謙하고 있다. 여기에서 '衆衆樂'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당시 정치적 견해가

12)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五)》, 204~206쪽 : 孟子曰: "獨樂樂, 不如與人樂樂。與少樂樂, 不如與衆樂樂。"此王公大人之樂, 非貧賤者所及也。孔子曰: "飯蔬食飲水, 曲肱而枕之, 樂在其中矣。顏子一簞食一瓢飲, 不改其樂。此聖賢之樂, 非愚者所及也。若夫鷦鷯巢林, 不過一枝; 鼯鼠飲河, 不過滿腹。各盡其分而安之, 此乃迂叟之所樂也。—— 不知天壤之間, 復有何樂可以代此也? 因合而命之曰: 獨樂園。

다른 新法黨이 득세하는 시대 조류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의 지조를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하겠다. 즉 새로 시작하는 은거생활 속에서 安分知足하는 굴뚝새와 두더지처럼, 자기 분수에 맞게 홀로 즐기는 獨樂을 추구하는 삶을 살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新法黨과의 정치적 불협화음으로 政界에서 물러난 野人의 입장에서 자기 수양을 즐거움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바로 전통 儒家의 '獨善其身'(궁색하면 홀로 그 몸을 선하게 함)<sup>13)</sup> 사상을 실천하는 것이라 하겠다.

獨樂園은 讀書堂·弄水軒·釣魚庵·種竹齋·採藥圃·澆花亭·見山臺 등 일곱 채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그 용도에 맞게 이름을 붙였다. 그가 독락원에 조성한 이 일곱 공간은 그가 추구하고자 하는 獨樂의 터전이며, 獨樂을 실천하는 현장이었다.

나 迂叟는 평소에 책을 읽으며, 위로는 성인을 스승으로 삼고 아래로는 여러 어린 분을 벗으로 삼으며, 仁과 義의 근원을 살펴보고, 禮와 樂의 실마리를 탐구한다. 형체가 생기기 이전부터 사방이 통하여 다함이 없는 공간의 저쪽에 이르기까지 사물의 이치를 눈 앞에 모아놓는다. 안타까운 것은 다 배울 수 없는 것이나, 또 무엇을 남에게 구하며, 무엇을 밖에서 기대할 것인가? 마음이 권태로워지고 몸이 나른해지면, 물가에 나아가 낚시대 드리워 물고기를 잡기도 하고, 옷자락 거머쥐고 약초를 캐기도 하고, 도랑을 터 꽃나무에 물을 주기도 하고, 도끼를 휘둘러 대나무를 쪼개기도 하며, 한 대야의 물로 더위를 씻어내고, 높은 데에 올라 눈길 가는 대로 바라보기도 하며, 한가로이 이리저리 거닐며, 오직 마음 가는 대로 따라할 뿐이다.<sup>14)</sup>

獨樂園의 일곱 공간에서 누리하고자 하는 즐거움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讀書堂에서의 독서, 釣魚庵에서의 낚시, 採藥圃에서의 약초 캐기, 弄水軒·澆花亭에서의 화초 가꾸기, 種竹齋에서의 대나무 쪼개기, 見山臺에서의 景觀眺望하기 등 讀書之樂을 제일순위에 두고는 있지만, 독서 이외에서도 유유

13) 《孟子·盡心上》: 古之人, 得志澤加於民, 不得志修身見於世, 窮則獨善其身, 達則兼善天下.

14)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五)》, 204~206쪽, <獨樂園記> : 迂叟平日多處堂中讀書, 上師聖人, 下友群賢, 窺仁義之原, 探禮樂之緒. 自未始有形之前, 暨四達無窮之外, 事物之理, 舉集目前. 所病者學之未至, 夫又何求於人, 何待於外哉? 志倦體疲, 則投竿取魚, 執袵采藥, 決渠灌花, 操斧剖竹, 濯熟盥手, 臨高縱目, 逍遙徜徉, 唯意所適.

자적인 삶을 지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또한 그는 이러한 삶의 信條를 <獨樂園七題><sup>15)</sup> 에 투영하였는데, 그 중 <讀書堂>에 주목해보기로 하겠다.

吾愛董仲舒,	나는 동중서를 사랑하는데,
窮經守幽獨。	(그는) 경학을 궁구하고 깊이 숨어 홀로 있기를 지켰네.
所居雖有園,	사는 곳에 정원이 있었지만
三年不遊日。	3년 동안 눈길 한번 주지 않았네.
邪說遠去耳,	그릇된 말에는 귀를 멀리하고
聖言飽充腹。	성인의 말씀으로 배를 채웠네.
發策登漢庭,	발책 <sup>16)</sup> 으로 한나라 조정에 올라
百家始消伏。	백가들을 비로소 사라지게 했네.

董仲舒의 한 눈 팔지 않고 오로지 학문에만 매진하는 학구열과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생활자세를 모범으로 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讀書堂에서 經學을 탐구하고, 聖人의 말씀을 학습하여 자신의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董仲舒가 諸子百家的 이론을 배척한 것처럼 당시 분분한 이론들을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新法黨의 개혁 논리에 대한 반대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司馬光은 사실상 讀書堂에서 학문 탐구와 저술 작업에 온 정력을 쏟아부었는데, 다음의 시들 속에서 이런 그의 열정을 찾아볼 수 있다.

<次韻和復古春日五絕句 其三><sup>17)</sup>

東城絲網蹴紅毬,	동쪽 성에선 그물 쳐 빨간 공 차고
北里瓊樓唱石州。	북쪽 마을 기루에선 석주가를 부르네.
堪笑迂儒竹齋裏,	우랄한 선비 種竹齋 안에 있다고 비웃겠지만
眼昏逼紙看蠅頭。	눈이 흐려 종이 가까이 대고 파리머리 같은 작은 글씨 보네.

15)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一)》, 244~251쪽.

16) 황제가 친히 時務策에 관한 문제를 내어 시험보는 제도.

17)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430~431쪽.

洛陽에서 교류가 많았던 宋復古의 시에 차운하여 화답한 시로, 봄날 온 마음이 환락을 즐길 때 남들이 우월한 선비라고 비웃을지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학문에 몰입하는 모습이 생동감있게 그려지고 있다. 司馬光의 이런 학구적인 자세는 그의 <和邵堯夫安樂窩中職事吟><sup>18)</sup> 시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靈臺無事日休休。	마음에 걱정거리 없어 날마다 편안하니
安樂由來不外求。	안락은 본래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네.
細雨寒風宜獨坐。	가랑비 내리고 찬바람 불면 응당 홀로 앉아 있고
暖天佳景卽閑游。	따뜻한 날 경치 좋으면 한가롭게 유람하네.
松篁亦足開青眼。	소나무 대나무도 靑眼을 뜨기에 족하고
桃李何妨插白頭。	복사꽃 오얏꽃을 백발에 꽃은들 어찌하리?
我以著書爲職業。	나는 저술하는 것을 업으로 삼고 있지만
爲君偷暇上高樓。	그댈 위해 잠을 내서 높은 누각에 오르네.

邵雍은 字가 堯夫이며, 自號가 安樂先生, 伊川翁인 宋代 理學家로, 王安石의 新政에 반대하다가 만년에는 洛陽에 머물렀다. 洛陽에서 자신의 거처를 安樂窩로 이름 짓고 自號를 安樂先生이라 하였다. 司馬光은 洛陽에 온 이후, 邵雍과 莫逆之友가 되어 시를 주고받기도 하고, 틈틈이 같이 인근 지역을 유람하기도 하였다. 이 시는 여덟 구 중에 앞 여섯 구에서는 邵雍의 樂天知命, 順理無爲를 추구하는 樂觀精神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인생관도 邵雍과 대동소이함을 드러내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둘째 구에서는 진정한 安樂은 마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老莊思想의 추구이며, 司馬光 자신이 政治的 失意에 대한 自慰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다섯·여섯 째 구에서는 阮籍의 靑眼의 故事를 援用하여 邵雍의 松竹같은 고결한 선비정신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뒤 두 구 중, 일곱째 구의 '저술을 업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유유자적한 생활 속에서도 대부분의 시간을 《資治通鑑》 등의 저작에 투자하고 있는 그의 학자로서의 학문적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구에서는 저술 작업을 하는 분당

18)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40쪽.

속에서도 틈을 내서 邵雍과 높은 누각에 오르는 모습 속에서 정신활동의 이완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司馬光의 삶의 지혜와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을 느낄 수 있다.

司馬光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그의 再傳弟子(제2대로 전수된 제자)인 馬水卿의 글에 더욱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馬永卿이 夏縣令일 당시, 司馬光은 夏縣 고향집을 방문하면, 늘 賜書閣 동쪽의 小閣에 머물렀는데, '모시는 아전은 늙은 노복이 유일했고, 一更二點이 되면 노복에게 먼저 자라고 하고, 책을 보다가 한밤중이 되면 스스로 촛불을 끄고 잤는데, 五更初에 이르면 스스로 일어나 촛불을 켜고 등에 불을 붙여 집필하였으며, 밤마다 이리하였다.'<sup>19)</sup>라고 기억하였다

司馬光이 은거 후 하루 일과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문 탐구에 할애하고 있었음을 그의 시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한편으로는 養生을 위하여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였다. 그는 洛陽에 은거하면서 野人으로서 獨樂을 추구하는 자태를 그의 시 속에 담았다.

<樂><sup>20)</sup>

吾心自有樂,	내 마음은 스스로 즐거움이 있거늘
世俗豈能知?	세속에서는 어찌 알 수 있으랴?
不及老萊子,	楚의 은사 老萊子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多於榮啓期。	春秋 시기 은사 榮啓期보다는 즐거움이 많네.
縑袍寬稱體,	거친 옷이지만 몸에 넉넉하게 맞고
脫粟飽隨宜。	거친 현미지만 배불리 먹을 수 있다네.
乘興輒獨往,	흥을 타서 문득 홀로 떠나고
携筇任所之。	짚은 죽장이 가는 대로 몸을 맡기네.

19) 李昌憲 著, 《司馬光評傳》, 南京大學出版社, 2002. 210쪽 재인용: 司馬光的再傳弟子馬永卿曾爲夏縣令, 據他的回憶, 司馬光在夏縣老家時, 常常宿於賜書閣東邊的小閣內。"侍吏唯一老僕, 一更二點, 卽令老僕先睡。看書至夜分, 乃自灺火滅燭而睡, 至於五更初, 公卽自起發燭, 點燈著述, 夜夜如此。

20)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17쪽.

자신의 은거생활이 춘추 시대 말기, 楚나라 隱士 老萊子の 즐거움<sup>21)</sup>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春秋 시기 隱士 榮啓期の 즐거움<sup>22)</sup>보다는 더욱 많다고 하면서衣食이 빈천한 은거의 삶 속에서도 자기 만족을 표현하고 있다. 그는 洛陽에 은거하면서 ‘죽장이 가는 대로 몸을 맡기는’ 탈속적이고 자유분방한 隱士의 삶을 지향하였던 것이다. 다음의 <寄題李水部庠滄水別業><sup>23)</sup>에서도 번잡한 세속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연에 몸을 맡긴 채 살아가는 삶에 흡족해하고 있다.

茅茨臨素滄,	띠 지붕 소산강을 바라보고
沃野帶長林。	비옥한 들엔 긴 숲이 띠를 둘렀네.
日永一堂靜,	해는 길고 온집은 고요하고
草生三徑深。	풀은 세 갈래 길에 무성하네.
銷憂何用酒,	근심을 없애려 술을 왜 마시며
爲樂不須琴。	즐기기 위해 거문고를 탈 필요도 없네.
擾擾市朝客,	요란한 市井과 조정의 객들
無人知此心。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구나.

新法黨派를 세속의 名利에 눈이 어두운 ‘市朝客’이라고 조롱하며 자신은 ‘근심을 풀려고 술을 마실 필요도 없고, 자연의 소리가 있어 거문고를 탈 필요도 없다’고 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獨樂의 삶을 예찬하고 있다. 그는 사실 洛陽 은거 이전부터 일찍이 ‘市朝客의 번뇌에서 벗어나 유유자적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이다.

<東窓><sup>24)</sup>

臨風梳短髮,	바람 마주하고 짧은 머리 빗질하고
蕭颯晚涼新。	소슬한 바람부니 상쾌한 저녁일세.

21) 난세를 피하여 蒙山 기슭에서 농사를 지었음. 楚王이 그가 인재임을 듣고 불렀지만 응하지 않고 은거하였는데, 늙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일흔 나이에 어린아이기 입을 색동옷을 입고 재물을 부린 일화가 있음.

22) 그는 사람으로 태어난 즐거움, 남자로 살아가는 즐거움, 장수하는 즐거움 등 세 가지 즐거움을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으로 삼고 유유자적하게 살았음.

23)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02쪽.

24)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83쪽.

不識市朝客,	市井과 조정 객들의 번뇌를 모르고
何如江海人。	어찌 강과 바다를 노니는 이의 유유자적을 알리오?
沈吟憑棹几,	비자나무 책상에 기대어 읊조리고
欹側戴紗巾。	비스듬히 깎 두건 쓰네.
濯世事無盡,	흔탁한 세상사는 다함이 없건만
東窓聊放神。	동쪽 창가에서 제멋대로 생각하네.

그는 殿中丞·集賢校理 職에 있던 36세 때 지은 이 시에서 벼슬살이에서 번뇌하는 자신을 ‘市朝客’으로 비유하고 있다. 또한 벼슬길의 고달픔을 겪어봐야만 유유자적의 즐거움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면서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 흔탁한 세상 일을 잠깐 잊고 자유분방하게 노니는 시인의 모습이 역력하다. 이러한 자유를 만끽하며 자연과 더불어 살며 獨樂을 즐기는 그의 삶의 면모는 다음의 <自題寫眞><sup>25)</sup>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黃面霜鬚細瘦身, 누런 얼굴에 흰 수염을 한 마른 몸이라  
從來未識漫相親。 본래부터 맘놓고 친근하게 사귀는 것을 몰랐네.  
居然不可市朝住, 당연히 市井과 조정에 머물 수 없고  
骨相天生林野人。 골상이 野人으로 타고 났네.

자신은 천부적으로 몰골이 추해서 남들과 친근하게 사귄 수가 없었고, 따라서 市井과 조정에서 세속적인 삶을 사는 데 적합하지 않고 野人으로 사는 게 천성에 맞다고 自嘲하고 있다. 그러므로 30여 년의 벼슬살이하던 관리로서의 모습은 자신이 원하던 바가 아니었고, 지금 洛陽에 은거하고 있는 野人의 모습이 본연의 自畫像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자신에 대한 묘사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하나의 신체 타령이라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司馬光은 洛陽에 은거한 이후, 《資治通鑑》 등의 저술 작업과 經學 등의 학문 탐구에 매진하는 한편, 자연과 더불어 사는 獨樂의 삶을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시 속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www.kci.go.kr

25)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417쪽.

## 2.3 名士와의 交誼

司馬光이 洛陽에 은거하고 있던 시기인 熙寧, 元豐 年間に 당시 洛陽에 머물고 있었던 名士인 邵雍·蘇軾·范鎮·程顥·程頤·范純仁·韓維·呂誨·呂公著·耆英會 회원<sup>26)</sup>·眞率會 회원<sup>27)</sup> 등과 학문적이고 인간적인 교류를 맺었다. 이 절에서는 司馬光이 洛陽 시기에 交遊하던 名士들 중에서 交分이 매우 두터웠던 邵雍·范鎮·蘇軾과 관련된 詩를 통하여 그들의 交誼가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邵雍과의 교제에 주목하여 보자.

<酬邵堯夫見示安樂窩中打乖吟><sup>28)</sup>

安樂窩中自在身,	安樂窩에서 자유자재인 몸
猶嫌名字落紅塵。	이름이 홍진에 떨어지는 걸 싫어하네.
醉吟終日不知老,	취해서 읊조리니 종일 늙는 줄을 모르고
經史滿堂誰道貧。	경전과 사서가 집안에 가득하니 누가 가난하다고 하라?
長掩柴荆避寒暑,	잎나무 가시나무로 길게 덮어 추위 더위를 피하고
只將花卉記冬春。	단지 화초를 통해 겨울과 봄을 기억하네.
料非空處打乖客,	원컨대 허심 속에 머물며, 임기응변에 능한 객이 아니라
乃是清朝避世人。	바로 청명한 조정에서 속세를 피한 사람이길.

邵雍은 字가 堯夫이며, 王安石의 新政에 반대하다가 嘉祐 칠년(1062), 고향인 衛州에서 洛陽으로 이주하였다. 司馬光 등이 주택을 마련해주자, 자신의 거처를 安樂窩로 이름 짓고 自號를 安樂先生이라 하였다. 司馬光은 洛陽에서 邵雍의 도덕과 학문에 대해 매우 존송하며, 8년 연상인 邵雍을 형으로 대하고 친밀

26) 耆英會는 元豐 五年(1082), 西京留守 文彥博이 唐代 白居易가 晩年에 洛陽에서 만든 九老會를 본떠 만든 모임으로, 당시 反新法派인 富弼·文彥博·席汝言·王尙恭·趙丙·劉幾·馮行己·楚建中·王愼言·張問·張燾·王拱辰·司馬光 등 13인으로 구성되었는데, 司馬光(64세)은 70세 이하였지만 명망이 있어서 파격적으로 가입되었음.

27) 眞率會는 司馬光이 제안하여 만든 모임으로, 司馬光·文彥博·席汝言·王尙恭·楚建中·王愼言·范純仁·鮮于侁·宋叔達 등 9인으로 구성되었음.

28)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81~382쪽.

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 시에서는 번잡한 세속을 탈피하여 자유자재인 몸으로 經典과 史書를 탐구하며 安樂窩에서 安貧樂道를 추구하는 邵雍의 삶을 흠모하고 있다. 다음의 시에서도 노년에 접어든 司馬光이 뜻이 맞는 邵雍과 담소를 나누고 싶은 심정을 읊고 있다.

<和邵堯夫年老逢春>29)

年老逢春春莫哈,	연로해도 봄을 맞아 비웃음을 당하지 말아야 하지만
朱顏不肯似春回。	빨간 얼굴은 봄처럼 다시 돌아올 수 없구려!
酒因多病無心醉,	술도 병이 많아 취할 마음이 없고
花不解愁隨意開。	꽃도 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임의대로 피는구려!
荒徑倦游從碧草,	거친 길은 거닐기에 고달파 푸른 풀을 따라나서고
空庭慵掃自蒼苔。	텅빈 뜰은 청소하는 데 게으르니 저절로 이끼가 자랐네.
相逢談笑猶能在,	서로 만나 담소하며 자유자재할 수 있으니
坐待牽車陌上來。	수레를 몰고 언덕 위에서 오기를 앉아서 기다리네.

이 시는 邵雍의 <老逢春春十三首>에 화답한 것으로, 앞부분에서는 나이가 연로해서 봄처럼 다시 청춘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무상을 기탁하고 있다. 그러나 뒷부분에서는 아직도 허심탄회할 수 있는 형같은 친구가 있어서 서로 위로를 삼을 수 있다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 구에서 邵雍과의 만남을 학수고대하는 司馬光의 모습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매우 돈독했음을 느낄 수 있다. 위에 예시한 시 이외에도 <花庵詩寄邵堯夫>·<贈邵堯夫>·<和邵堯夫秋霽登石閣>·<邵堯夫許來石閣久待不至>·<和邵堯夫安樂窩中職事吟>30)·<送酒與邵堯夫因戲之>·<邵堯夫先生哀辭二首> 등의 시를 통하여 司馬光이 洛陽에 은거하는 시기에 邵雍과의 交分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范鎮과의 友誼를 살펴보자.

www.kci.go.kr

29)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32~333쪽.

30) 본고의 제2절 '獨樂의 삶 추구'에서 예시함.

<和景仁卜居許下><sup>31)</sup>

壯齒相知約歲寒,	젊었을 때 서로 알고 노년을 같이하기로 기약했는데
索居今日鬢俱斑。	떨어져 살았더니 오늘은 둘 다 살쥘이 희끗희끗해졌네.
拂衣已解虞卿印,	관복을 벗고 虞卿처럼 <sup>32)</sup> 官印을 이미 풀고
築室何須謝傅山。	집을 하필이면 謝傅처럼 <sup>33)</sup> 산에다 지었소?
許下田園雖有素,	허하의 전원은 비록 소박하기는 하지만
洛中花卉足供閑。	낙양의 화초는 족히 아름다움을 줄 수 있소.
它年決意歸何處,	그때 어디로 돌아갈 것인지 약속했으니
便見交情厚薄間。	우정이 두터운지 얇은지 알 수 있을 것이오.

范鎮은 자가 景仁이고, 司馬光보다 11세 연상이었지만 同榜及第한 이후로 司馬光과 교분이 두터웠다. 司馬光은 일찍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景仁은 형제이고, 다만 姓이 다를 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친형제처럼 友愛가 깊었다.<sup>34)</sup> 두 사람이 노년에 벼슬살이에서 벗어나 은거하면서 옛 추억을 떠올리며 우정을 더욱더 깊게 나누는 모습이 역력하다. 司馬光과 范鎮 두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친분을 쌓으면서 노년을 許昌에서 같이 보내기로 약속하였는데, 司馬光이 洛陽에 은거하고 말았고 또 그 후 范鎮이 洛陽으로 옮기기로 하였는데 결국 이루어지지지는 않았다.<sup>35)</sup> 옛날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서로 이해하며 자신의 거처로 간절하게 초청하는 마음을 통하여 두 사람의 깊은 교분을 느낄 수 있다. 다음의 시에서는 자신을 동생처럼 돌봐주는 范鎮에 대해서 따뜻한 형제애를 느끼고 있는 司馬光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31)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49쪽.

32) 홍석보 역, 《史記列傳》, 삼성출판사, 1989. 180쪽 : 虞卿은 戰國時代 遊說家로 趙 孝成王에게 合縱抗秦을 건의하여 上卿이 되었으나, 후에 魏의 宰相 魏齊와의 관계로 인하여, 萬戶侯의 지위와 卿相의 印綬를 던져버리고 魏齊와 함께 趙나라를 떠나 大梁(魏都)에 가서 곤궁하게 지냈음.

33) 東晉 중기의 名臣으로, 字는 安石, 원래 隱者로 유명하여 王羲之 등과 東山에 은거하였는데, 조정에서 여러 번 등용하고자 하였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40세에 처음으로 出仕하였음.

34) 李昌憲 著, 《司馬光評傳》, 南京大學出版社, 2002. 216쪽 참조.

35) 宋衍申 著, 《司馬光評傳》, 廣西教育出版社, 1997. 139쪽 참조.

<平日遊園, 常策筇杖, 秋來發篋, 復出貂褥, 二物皆景仁所賜, 睹物思人, 斐然成詩><sup>36)</sup>

筇杖携已久,	筇竹 지팡이 가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貂褥展猶新。	담비 요 깔았는데 새 것 같네.
漸染岷山雪,	민산이 눈으로 점점 물들어
拂除京國塵。	서울의 티끌을 털어버리는 구나.
危扶醉歸路,	간신히 술 취한 몸을 지탱하여 돌아가고
穩稱病來身。	조용하게 병을 핑계로 찾아오네.
賴此齋中物,	방안의 이러한 물건 덕분에
時如見故人。	때때로 친구를 보는 것 같네.

이 시는 '평일에 뜰에서 노닐 때 늘 筇竹 지팡이를 짚고 가을이 오면 옷상자를 열어 담비 요를 꺼내는데, 두 물건은 모두 景仁이 준 것으로 물건을 볼 때마다 사람이 생각나니 문채나게 시를 이루게 되네.'라는 긴 제목에 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范鎰이 준 지팡이를 짚고 산책하고, 담비 요를 깔고 자면서 范鎰에 대한 고마움과 그리움을 구구절절이 읊고 있다. 司馬光과 范鎰은 일찍이 '살아서는 서로 傳記을 지어주고, 죽어서는 銘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하였다. 熙寧 3年(1070), 范鎰이 王安石을 통렬히 비판한 후에 은퇴하자 司馬光은 약속대로 《范景仁傳》을 지어 范鎰의 勇退를 칭찬하였다. 또한 司馬光이 별세 후, 范鎰은 약속대로 <司馬文正公墓誌銘>을 지어 애도하였다.<sup>37)</sup> 위에 예시한 시 이외에도 <聞景仁遷居許昌爲詩寄之> · <和景仁題崇福宮> · <和范景仁謝寄西遊行記> · <和景仁聞蟬> · <和景仁宿鶴鳴寺> · <和景仁噴玉潭> · <遊山呈景仁> · <和景仁遊壽安> · <和景仁疊石溪> · <應天院朝拜回呈景仁> · <和景仁七十一偶成> 등의 시를 통하여 司馬光이 洛陽에 은거하는 시기에 范鎰과의 交分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蘇軾과의 교분을 살펴보자.

www.kci.go.kr

36) 《司馬溫公集 編年箋註(二)》, 311쪽.

37) 李昌憲 著,《司馬光評傳》, 南京大學出版社, 2002. 220쪽 참조.

## &lt;超然臺詩奇子瞻學士&gt;38)

使君仁智心,	사군은 어질고 지혜로운 마음을 가졌고
濟以忠義膽。	충성스럽고 의로운 衷心으로 구제했네.
嬰兒手自撫,	어린애는 손수 어루만져 양육하고
猛虎鬚可撫。	맹호 수염은 뽑을 만했네.
出牧爲龔黃,	목민관으로 나가서는 龔遂와 黃霸가 되고
廷議乃陵黠。	조정에서 논의할 때는 바로 王陵과 汲黯이었네.
萬鍾何所加,	녹봉이 많아서 좋은 바가 무엇이며
飢石何所減。	녹봉이 적어서 나쁜 바는 무엇인가.
用此始優游,	이로써 유유자적하며
當官免阿諛。	관리로서 아첨하는 것을 면했네.
曩時守高密,	옛날 密州 太守 시절
民安吏手斂。	백성들은 편안하고 관리들은 손수 단속하였네.
投閑爲小臺,	한가한 틈을 타서 작은 누대를 짓고
節物得周覽。	계절의 경물을 두루 구경할 수 있었네.
容膝常有餘,	무릎을 넣을 만한 좁은 장소이지만 늘 여유가 있고
縱目皆不掩。	눈 가는대로 마음대로 하나도 가리지 않았네.
山川遠布張,	산과 강은 멀리 펼쳐지고
花卉近綴點。	화초는 가까이에 하나하나 아름답게 가꾸었네.
筵賓肴核旅,	손님을 초대하여 맛있는 음식을 같이하고
燕居兵衛儼。	편안하게 머물며 호위병처럼 지켰네.
比之在陋巷,	누추한 골목에 있는 獨樂園에 비해서
爲樂亦何歎。	즐거움이 있으니 또 무엇에 불만족하라!
可笑夸者愚,	과장한 자들이 어리석다고 비웃을 만하지만
中天猶慘慘。	하늘이 어두워질 것 같네.

蘇軾은 39세에 密州知事로 부임하였는데, 密州의 상황은 처음에는 계속되는 흉년으로 백성들이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도처에서 도적사건이 일어나는 등 민심이 흉흉하고 있었다. 蘇軾은 백성들을 위하고, 관리들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백성과 관리들의 지지를 받았다. 추진하는 정책이 차츰 정착되자 蘇軾은 낡은 누대를 보수하여 완공하고서는 超然臺라

고 명명하고 좀 한가한 틈을 타서 이 누대에 올라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하였다. 또한 超然臺를 소재로 樂觀的, 達觀的 인생철학을 담은 <超然臺記>를 써서 知人들에게 보냈는데, 당시 洛陽에 은거하고 있던 司馬光도 知人 중의 한 사람이었다.

위에서 살펴본 <超然臺詩寄子瞻學士>는 바로 熙寧 九年(1076), 司馬光이 <超然臺記>를 읽고 난 후에 蘇軾에게 보낸 和答詩인 셈이다. 당시 蘇軾과 司馬光은 보수파의 주축으로서 개혁파의 영수인 王安石의 신법정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다가, 蘇軾은 密州로 유배되고 司馬光은 개혁파 세력에 밀려 洛陽에 은거하고 있었다. 이 시는 一, 二句에서 司馬光이 蘇軾의 仁智心, 忠義膽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三句에서는 蘇軾의 密州에서의 孤兒 養育政策은 仁智心の 실천이며, 四句에서는 新法을 시행하는 개혁파 실권자들을 호랑이로 비유하여 蘇軾이 개혁파를 과감하게 비판한 것을 忠義膽이라고 好評하고 있다. 五, 六句에서는 西漢時代 지방관의 귀감인 龔遂와 黃霸에 비견하고, 新法政策에 대하여 소신있게 의견을 개진한 蘇軾을 忠諫과 直言을 서슴치 않았던 王陵과 汲黯에 비견하고 있다. 七句에서 十二句까지는 愛民하며 녹봉에 연연하지 않고 청렴결백한 관리로 稱頌하고 있다. 十三句에서 二十二句까지는 超然臺에서 유유자적하는 蘇軾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末二句에서는 超然臺를 지을 때 백성을 사역하고 세금을 유용했다고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여 비난한 무리들을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비판 세력들은 개혁파를 지지하는 자들이며 향후 이들 개혁 세력들에 의해 蘇軾이 곤경에 빠질 수가 있음을 ‘하늘이 어두워질 것 같다.’ 라는 표현으로 암시하고 있다. 사실상 이 시를 쓴 2년 뒤인 元豐 二年(1079), 이러한 암시가 현실화되어 나타났는데, 그 사건이 바로 烏臺詩案인 것이다. 蘇軾 文集의 내용을 御史臺에서 심사하고 新法 諷刺, 朝廷 愚弄, 皇帝 批判 등의 구실로 탄핵되어 구금되었는데, 司馬光도 蘇軾이 熙寧 十年(1077), 위 시에 대한 화답시로 보낸 <司馬君實獨樂園>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연루되어 銅 20근의 벌금형을 받았다.<sup>39)</sup>

39) 向有强, 《司馬光事迹詩文繫年》(廣西師範大學 碩士論文, 2010), 106쪽 참조.

이어서 위 시에 대한 화답시인 蘇軾의 <司馬君實獨樂園><sup>40)</sup>을 살펴보자.

青山在屋上,	지붕 위엔 푸른 산이 우뚝 솟아 있고
流水在屋下。	지붕 밑엔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데
中有五畝園,	그 사이엔 조그만 정원이 있어
花竹秀而野。	꽃과 대나무가 곱고도 야성적이겠군요.
花香襲杖履,	꽃 향기가 지팡이와 신발에 배고
竹色侵杯罍。	대나무의 푸른 빛이 술잔으로 스며들 때
樽酒樂餘春,	한 동이 술로 남은 봄을 마저 즐기고
棋局消長夏。	바둑으로 긴 여름을 보내고 계시겠군요.
洛陽古多士,	낙양에는 예로부터 선비들이 많은지라
風俗猶爾雅。	풍속이 아직까지 고아할 텐데
先生臥不出,	선생께선 드러누워 나가지 않으시니
冠蓋傾洛社。	고관들이 낙사로 물러들게 생겼군요.
雖云與衆樂,	여러 사람과 함께하는 게 즐겁다지만
中有獨樂者。	개중에는 혼자서 즐기는 이도 있는 법
才全德不形,	재주가 온전하여 덕을 겉으로 보이지 않고
所貴知我寡。	아는 사람이 적은 것을 귀하게들 여기는데
先生獨何事,	선생만은 무슨 일로
四海望陶冶。	온 천하가 구원해주길 바라는 것일까요?
兒童誦君實,	아이들조차도 군실을 칭송하고
走卒知司馬。	심부름꾼마저도 사마씨를 다 알거늘
持此欲安歸,	이런 명망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겠어요?
造物不我捨。	조물주가 우리를 버리지 않을 텐데요.
名聲逐吾輩,	명성이 우리를 떠날 줄 모르는데
此病天所積。	이 잘못을 저지르면 하늘이 처벌할 터
撫掌笑先生,	손바닥을 두드리며 몇 년에 걸친 선생의
年來效瘖啞。	멍어리 행세를 생각하며 웃음 지어요.

이 시는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인 ‘青山在屋上’句에서 ‘棋局消長夏’句까지는 먼저 獨樂園의 자연 경물을 묘사하고, 이어서 꽃과 대나무를 감상하며 때론 술을 마시고 바둑을 두는 獨樂園의 흥취를 그리고 있다.

40) 류종목 역주, 《소동파시집2》(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579쪽.

두 번째 단락인 ‘洛陽古多士’ 句에서 ‘中有獨樂者’ 句까지는 먼저 洛陽이 예로부터 名士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므로, 白居易가 洛社를 맺은 것처럼<sup>41)</sup> 名士들과 어울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司馬光이 추구하는 獨樂의 삶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 단락인 ‘才全德不形’ 句에서 ‘造物不我捨’ 句까지는 먼저 《莊子·德充符》의 ‘才全而德不形(하늘이 준 성품이 온전하면서도 덕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의 구절과 《道德經 第七十章》의 ‘知我者希, 則我者貴(나를 알아주는 자가 드물면 곧 내가 귀해질 것이다)’의 구절을 차용하여 司馬光이 진정한 德性的 소유자이고, 老子的 말처럼 세상에 알려지지 않으면 毀譽에 초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서주기를 기대한다면 또한 이를 뿌리칠 수가 없는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구에서는 세상에 명성이 높지만 政界에 담을 쌓고 은거하고 있는 司馬光에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것을 권유하고 있다. 네 번째 단락인 ‘名聲逐吾輩’ 句에서 ‘年來效瘠啞’ 句까지는 세 번째 단락에 이어서 蘇軾은 정치에 무관심한 司馬光을 병어리 행세를 한다고 꼬집고는, ‘吾輩(우리)’라는 표현을 쓰며 司馬光과 함께 정치적 동반자로 명성에 걸맞게 그릇된 정치를 바로잡아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위의 시를 통하여 蘇軾의 司馬光에 대한 존경과 믿음,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友愛를 실감할 수 있겠다. 위에 예시한 시 외에 蘇軾과 관련된 시가 없는 것은 蘇軾으로부터 <司馬君實獨樂園>을 받았다는 이유로 烏臺詩案에 연루된 사건등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일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司馬光은 邵雍·范鎮·蘇軾 등은 물론, 洛陽에 머물고 있던 여러 名士들과의 交遊를 통하여 獨樂의 삶 속에서도 인간적인 교류를 추구하였음을 그의 시 속에 반영하였던 것이다.

41) 白居易는 58세에 洛陽에 永住하기로 결심한 후, 如滿禪師 등과 함께 僧俗 9명이 香山九老詩社를 결사하고 그들과 함께 이곳에서 시를 읊조리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보냈다. 사마광도 사실상 元豐 五年(1082) 이후, 獨樂을 추구하면서도 洛陽에 머물고 있던 新法 反對派 인사들과 耆英會, 眞率會 등을 통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었음.

### 3. 結論

本稿는 司馬光의 文學적 위상을 평가하는 선행단계의 일환으로, 司馬光의 洛陽 은거 시기에 지은 시 작품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고찰하였다. 이 은거 시기는 晩年에 保守派 領袖의 신분에서 野人으로 물러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면서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며 교차하는 感을 시에 실었고, 열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펼쳐 400여 수의 시를 읊은 시기로 그의 시인으로서 위상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 시기에 지은 시의 내용을 분석해본 결과, 주제별로 政治的 失意와 獨樂의 求, 名士와의 交誼로 분류할 수가 있다. 각 주제별로 시 속에 반영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洛陽 은거 시기에 政治的 失意를 반영한 시는 적지 않다. 司馬光은 洛陽에 은거한 이후에 정치에 무관심하고<sup>42)</sup>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였지만, 改革派 王安石의 세력에 밀려 은거할 수밖에 없었던 分을 시를 통하여 분출하였던 것이다.

둘째, 司馬光은 ‘獨樂園’을 조성하여 政治的 失意를 극복하며,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는 삶을 추구하는 한편, 《資治通鑑》 등의 저술 활동을 통하여 獨樂을 누리는 자태를 그의 시 속에 그렸다.

셋째, 邵雍·范鎮·蘇軾 등과의 학문적이고 인간적인 두터운 交誼를 주로 和答詩를 통하여 진솔하게 표출하였다. 8년 연상인 邵雍과 더불어 安貧樂道를 추구하며 나누는 친형제같은 友愛, 同榜及第한 11년 연상의 范鎮과의 만년에 이르기까지의 변함없는 깊은 交分, 17년 연하의 蘇軾과의 정치적 동반자로서의 상호 존경과 믿음을 꾸밈없이 시 속에 표현하였다.

司馬光의 洛陽 은거 시기의 시를 통하여 보건대, 그는 典故 用을 즐겨하면서도 平易한 表現을 추구하였으며, 修辭에 치중하지 않고 率直淡泊한 묘사에

42) 《宋史·司馬光傳》: 徙居許州, 趣入觀, 不赴: 請判西京御史臺歸洛, 自是絕口不論事.

비중을 두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 參考文獻 >

- 司馬光 撰, 李之亮 箋註, 《司馬溫公集 編年箋註》, 巴蜀書社, 2008.
- 司馬光, 《司馬文正公傳家集》, 臺灣商務印書館, 1968.
- 李昌憲, 《司馬光評傳》, 南京大學出版社, 2002.
- 宋衍申 著, 《司馬光評傳》, 廣西教育出版社, 1997.
- 向有強, 《司馬光事迹詩文繫年》, 廣西師範大學, 碩士論文, 2010.
- 宋衍申, 《司馬光評傳》, 廣西教育出版社, 1997.
- 楊洪杰·吳麥黃 著, 《司馬光傳》, 山西人民出版社, 1997.
- 王德保, 《司馬光與資治通鑑》,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2.
- 余飛, 《司馬光詩歌研究》, 華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9.
- 王守芝, 《司馬光的詩歌與其思想之關係》,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3.
- 류종목 역주, 《소동파시집2》,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홍석보 역, 《史記列傳》, 삼성출판사, 1989.
- 宋衍申, <司馬光文學成就述論>, 《東北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제5기, 1987.
- 宋龍準, <司馬光的詩論과 詩>, 《중국문학》 37집, 한국중국어문학회, 2002.
- 林素芬, <獨樂與中和—論司馬光園林書寫中的修身意涵>, 《東吳中文學報》, 제21기, 2011.
- 郝美娟, <論司馬光獨樂園的文化內涵>, 《北方論叢》, 제4기, 2012.
- 拙稿, <司馬光的詩觀과 社會詩>, 《中國學論叢》 39집,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13.

### < 中文提要 >

司馬光是宋朝乃至整個中國歷史上著名的政治家、思想家和史學家，在文壇上也是一位詩、文俱佳的文學家。他一生主要精力用在修史和從政上，但是這不應成爲忽視他文學成就的理由。熙寧四年(1071)，因與王安石議政不合，悲憤無奈之下，請判西京留司禦史臺，遂荀居洛陽。

熙寧六年(1073),司馬光健成獨樂園。他在獨樂園中,創作詩歌、著書入說、上師聖人、下友群賢、逍遙徜徉。本文試以司馬光的洛陽隱居時期詩歌爲中心,進一步理解他的詩歌特點。司馬光的洛陽隱居時期詩歌反映了政治的失意、獨樂的生活理想、與名士的交誼。具體表現在:

一. 政治的失意: 司馬光由於與王安石政見相左,自請西京禦史臺,遂菑居洛陽。因此很多故友舊僚紛紛與之斷絕了來往。司馬光在〈初到洛中書懷〉、〈閑居〉、〈獨步至洛濱 二首 其二〉、〈居洛初夏作〉、〈花庵獨坐〉、〈送祖擇之〉、〈宿南園〉中詩人的心情不是快淡安詳,而是抑鬱不平。

二. 獨樂的生活理想: 司馬光健成獨樂園,標舉獨樂的生活理想。司馬光在〈讀書堂〉、〈次韻和復古春日五絕句 其三〉、〈和邵堯夫安樂窩中職事吟〉、〈樂〉、〈寄題李水部摩澆水別業〉、〈東窓〉、〈自題寫真〉中展露了其私人審美空間的風流雅韻,以及閑適自足的生活態度。

三. 與名士的交誼: 熙豐時,當時的一流學者如邵雍、二程和名臣範鎮、範純仁、韓維等多聚集於洛陽,司馬光居洛與他們切磋學問,過從甚密,結下了深厚的友誼。司馬光在〈酬邵堯夫見示安樂窩中打乖吟〉、〈和邵堯夫年老逢春〉、〈和景仁菑居許下〉、〈平日遊園,常策筇杖,秋來發篋,復出貂裘,二物皆景仁所貺,睹物思人,斐然成詩〉、〈超然臺詩寄子瞻學士〉中表達了深厚的友誼。

根據司馬光的洛陽隱居時期詩歌,可能表明他的詩歌特點是言語質朴,通俗易懂,不雕琢辭藻。

關鍵詞: 司馬光、洛陽隱居時期、政治的 失意、獨樂 追求、交誼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7. 15.	2013. 8. 2.	2013. 8. 19.	2013. 8. 22.	2013. 8. 31.